주일가정예배 순서

2020년 7월 5일 주일예배
인도자 : 가족 대표

기 원 ····· 인도자

8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0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시 145:8-10)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교제하며,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588장 ····· 다같이

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냐
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마태복음 5:38-42** ····· **인도자**

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설　교 ····· **"왕십리 정신"** ····· **인도자**

기　도 ····· **설교자**

찬　송 ····· **412장** ····· **다같이**

1.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후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2.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3.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 이 땅 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1. 코로나 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왕십리 정신"

(마태복음 5:38-42)

산상수훈의 '더 나은 의(義)' 다섯 번째는 '보복'에 대한 것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5:38). 고대에는 손해는 손해로 갚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는 십계명을 기초로 한 다양한 판례법이 나옵니다.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본 경우, 인과응보 원리에 따라 재판장에게 내려준 지시 사항들입니다. 가해자에게 얼마만큼 보복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래 과도한 보복 금지, 개인적 복수 금지를 위한 것입니다. 기원전 1700년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동해복수법(同害復讐法)이 있었는데, 지나친 처벌을 피하고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동해복수법을 권리이자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명령을 적극적 명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복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이에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롬12:17)고 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를 상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십 리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은혜받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자들은 악한 자, 고발하는 자, 강요하는 자,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인데, 이는 악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약한 자로 나아갑니다. 약한 자에게는 '이타심'을 베풀어야 하는데, 이타심은 보복 금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사실상 크리스천이라도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루고 계십니다. 외부가 깨뜨릴 수 없는 내적 평안, 자유, 의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여유'에서 옵니다. 왼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주고, 십 리를 걸어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마음의 여유,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 등 여유를 가지고 사십시오. 여유가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고 조급하고 남을 비난하고 실적에 집착하고 일 중독에 빠지고 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나 일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더 많이, 사람에게는 더 적게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존재보다 행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유로우신 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죄를 덮고도 남고,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넓은 품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이삭은 여러 다툼과 싸움을 피해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그것이 여유를 주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이 승리합니다. 또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은 오직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의 여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들 때문에 여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소한 것들에 연연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고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보다 더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부함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1) 집에서의 편한 복장 보다 단정한 복장을 입습니다.
2) 본인이 사용하는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3) 온라인 예배는 10분 전에 미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배 화면과 볼륨을 준비합니다. 가급적 화면이 큰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 참여시에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말고 컴퓨터 같은 가장 큰 화면 하나로 함께 드립니다.
5) 주일 가정예배서를 이용하시는 가정은 미리 가족 수 만큼 순서지를 준비합니다. 설교는 설교자만 설교 요약본을 준비합니다.
6)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7) 온라인 예배 참석과 이름을 남깁니다.
8)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9) 코로나19사태의 퇴치와 치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